

해외신간

'종교론·진리론' 읽으면 불교의 진리 새삼 확인

불교를 종교학·종교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불교가 제시하는 진리와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의 학자 사이구사 미쓰요시(三枝充徳)가 엮은 <종교론·진리론>(불교시대사 권)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불교를 고찰한 학술서. 일본에서 발간되는 '강좌 불교사상' 제5권(종교론·진리·가치론)(1982, 理想社, 동경)을 번역한 것으로 현대 일본의 불교학·종교학·철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했다. 역자는 조운호씨(전남대 강사).

제1부 '종교론'에서는 니시타니 게이치(西谷啓治)를 포함한 5인 학자의 '공(空)과 즉(即)' '연기사상' '정토사상과 종교철학' '신사상과 종교철학' '불교사상의 종교심리학적 고찰' 등 다섯 편의 논고를 통해 종교학·종교철학·종교심리학적 시각에서 불교의 종교성과 종교로서의 불교를 고찰했다.

제2부 '진리론'에서는 인도·중국·일본 등에서 전개된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와 가치 문제를 논하고 그것들의 추구, 달성과정, 사상적 특징 등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도불교의 진리관' '중국불교의 진리·가치론' '본각사상' 등 세 편의 논고와 한명우 기자

일념부터 팔만사천까지

이제 열법사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일념(一念) 이공(二空)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제) 오온(五蘊) 육바라밀(六波羅密)...십우도(十牛圖)...12연기(緣起) 53선지식(善知識)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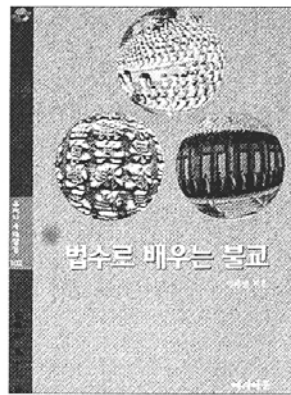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불교용어들이다. 여기에는 일, 이, 삼...팔, 구, 십 등 수의 개념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법의 가르침을 담은 수(數)를 법수(法數)라 한다. 즉 법수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하며, 수의 개념이 담긴 불교용어를 총괄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교리·입문편의 두 번째 권인 <법수로 배우는 불교>는 법수(法數)의 의미와 법수가 들어 있는 불교용어를 설명함으로써 불교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이제 열 법사(유마산원장), 열 입구에서 만나는 일주문이나

법수에 담긴 가르침 경전·일화등 인용 마음뉘기 쉽게 풀이 도서출판 여시아문 펴내

불이론, 부처님 탄생과 입멸과정을 여덟 단계로 그린 팔상도,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물(6법공양) 등 불교의 갖가지 구조물과 문양 그리고 의식 속에는 어떤 의미있는 숫자가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의미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딱딱한 설명조가 아닌 갖가지 일화와 경전말씀, 일상의 소재를 인용한 이야기 전개는 마치 단편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다. 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기에 법수 용어 풀이가 독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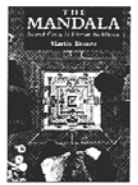
의 심심증장 및 수행과 어우러지도 못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즉 단순한 용어설명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법수를 통해 불법의 심오함과 삶의 지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신행 필독서'라 칭할 만 하다.

이기 때문이다...일심 속으로 뛰어 들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수행불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중생들이 해탈에 들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러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책에 실린 법수는 일념에서부터 팔만 사천 법수까지 모두 43개로 이를 하나하나에 이같은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제 열 법사는 "정법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불교의 숫자는 법수로 보아야 하며 그 속에는 반드시 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으로 법수를 정의한 후 "부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간자의 마음을 밝혔다. <법수로 배우는 불교>는 97년 1월 15일(제110호)부터 98년 2월 25일(제163호)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돼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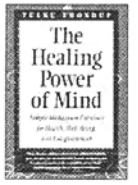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불교학자 마틴 브라운(美)이 펴낸 <만다라: 티베트 불교의 성스러운 원(The Mandala: Scared Circle in Tibetan Buddhism)>에는 로버트 서먼교수 등 7명의 불교학자들이 철학·종교·정신분석학적 면에서 만다라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 글이 실려있다. 서먼교수는 "만다라에는 불자들이 따라야 할 최상의 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총 1백여개의 만다라 사진도 부록으로 들어있다.

삼발라출판사 권. (p.p 152, ISBN 1570623805)

마음의 치유력



"명상은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미국에 개설된 티베트하우스에서 명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손두프 블루가 발간한 <마음의 치유력(The Healing Power of Mind)>에는 고래(古來) 경전에 나타난 48종류의 명상법이 소개되어 있다. 또 이 명상법에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중요한 역할이 잘 설명되어 있다. 손두프 블루는 "48종류의 명상 수행법은 실천적 명상법이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발라출판사 권. (p.p208, ISBN 1570623309)

현대어역 대승기신론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을 이론과 실천의 양측면에서 적절히 요약, 설명하고 있는 <현대어역 대승기신론>이 나왔다. 저자는 이케다로신.

이 책은 현대교학의 입장에서 대승기신론의 내용을 조명했다. 또 불교의 보편성을 밝히고, 다른 가르침이나 불교에 대한 비난 등에 유혹되지 않고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는 이치 등을 현대인에게 쉽게 제시했다. 일본 다이쇼(大藏)출판 권.

'벽암록' '햄릿' 재해석

김용욱교수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통나무 권)는 도올 김용욱 교수가 도올선원에서 <벽암록>에 대해 강연했던 내용을 묶은 책이다. 선불교의 공안집중 가장 탁월한 <벽암록>을 풀이하면서 달마 혜능 남전 주조 설봉 임제 등 기라성같은 선사들의 일대기와 진면목을 저자의 정교한 언어로 오늘에 되살려냈다.

이와 함께 <햄릿>의 주요부분을 원문과 함께 읽고 <벽암록>과 관련해 재해석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 햄릿의 고뇌를 통해 본 셰익스피어는 당대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아나 연기, 자연적 순환론



인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추구한 것도 구원이 아닌 해탈임을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햄릿)은 공안이고 셰익스피어도 하나의 공안이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셰익스피어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만한 신선한 충격이다.

어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만한 신선한 충격이다. 서문에서는 한국불교와 불자들에게 보내는 충언도 잊지 않았다. '교육적 비전의 결여'와 '사회적 비전의 결여'에 대한 한국불교 스스로의 반성과, 21세기를 이끌어 갈 비전을 제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종교의 실천'에 접근하는 시들

김영무 시집 '산은 새소리마저...'



김영무 시인(서울대 영문과 교수)은 종교의 궁극적 목표를 '여래의 씨앗을 싹 틔우는 길'로 이끌고, 그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은 최근 나온 그의 시집 <산은 새소리마저 쌓아두지 않는구나>(창작과비평사 권)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처음 조선땅 용인에 있는 천주교 묘지를 찾아보고/참으로 많은 가슴이 아왔는구나...얼마전 임적한 성철의 죽음을 보면서/너는 무슨 생각을 했더냐...발자취를 남기

고자 하는 생각조차 남기지 않고/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안되느니라.'

시 '조선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첫째 편지-금강경의 어법을 본떠서'에서 그는 주교들의 무덤이 지나치게 큰 것을 민망해 하면서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불교의 무욕사상이 어떤가를 묻는다. 그리고 시 '...둘째 편지'와 '...셋째 편지'에서도 '석가세존이 들어올린 연꽃 향연이 그 깊은 속뜻' 등을 소재로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 등을 비판한다.

하지만 불경의 어법을 본떠서, 사도 바울로의 서간문 형식으로 쓴 이들 시편들은 불교사상의 설교가 아닌 종교적 차별성에 대한 근본적 관용을 설교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안타까운 현실을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각성하자고 촉구한다. 한명우 기자

해당스님이 펴낸 영어발음책 '룰루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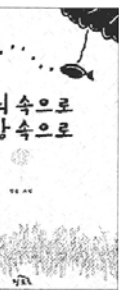
해당스님(해남 성불암주지)이 한국인을 위한 영어발음책 <룰루랄라 영어발음책>(두산동아 권)을 펴내 화제다.

이 책은 집이 가난해 중·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농사를 짓던 스님이 열여덟살에 처음 영어를 접하면서 겪었던 온갖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쉽고 편안하게 발음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번뇌속으로 세상속으로 법문스님 지음

자신을 바로 볼 때 자기 삶의 주인



"발장게 달구어진 쇠공을 갖고 싶어 손을 옮겨가며 쥐어도 손은 뜨거워질 뿐이다." 법문스님(월간 정토 발행인)은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보고자 할 때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말한다.

<번뇌속으로 세상속으로>는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로 우리 삶의 괴로움과 갈등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게 하는 법문집.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삼았기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명쾌히 알 수 있다. 회합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우쳐 준다. <정토, 5천원>

화제의 책

현대인과 선(禪) 시게오의 지음

일상생활서의 수행 구체적 제시

일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선을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한 선의 지침서. 선에 대한 개념 정의와 선의 역사도 설명했다. 자신이나 주변 친구의 체험을 통해 선의 참 정신을 이 시대 언어로 표현한 것이 특징. 선과 문화의 관계도 다뤄 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고, 또 어떤 문화 양태로 발전했는지도 소개했다.

욕심, 노여움, 어리석음을 말끔히 쓸어낸 '빈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의 지혜를 제시한다. 양기봉씨가 옮겼다. <대원정사,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정	동쪽나라
2	세상에서 잘 행복한 사람	나무불	민족사
3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4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종서	여시아문
5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룡	효림
6	눈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이효결의	예문서원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을순	신우당
8	불교입문	조계종원부	조계종출판사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10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깨어나느냐	정태혁	여시아문

구입문의:(02)737-0695

주머니속 대장경 - 502

여시아문은 '듣는 바, 찬의 어긋남도 없이 전해왔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붓다의 교육관, 그리고 ... 미래 교육의 열쇠



그의 현실의 병폐를 뿌리째 통감하는 모든 일들에게 권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부처님의 음성 - '천상천하 유아독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 획일화의 칼'을 들이대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인간에 대한 무지막직한 횡포에 가깝다.

김중서 지음/ 66 182쪽 / 값 4500원(여시아문 펴냄)